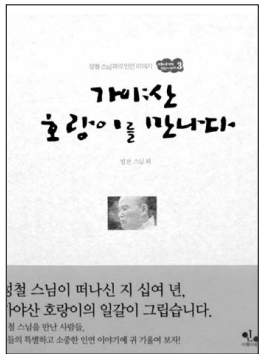


'가야산 호랑이' 일갈이 그림다

'내가 성철 스님을 처음 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 송평사에서 한 철을 나며 여름을 지낼 때였다. 스님이 나타나자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발박사여서 세상천지 모르는 것이 없나? 글이 우리나라 제일이라." 모두들 "철수좌"하며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마도 스님의 박학다식함과 심년 장좌불와 수행을 부러움 반, 외경심 반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때 스님의 나이 서른다섯으로 할날같이 정진하던 시절이었다.'

일타 스님 회고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
법전 스님 외
인연 | 9800원

성철 스님(1912~1993)이 가야산을 떠난지 13년. 아직도 대중들은 성철 스님이 곁에 있는 듯 하다. 오히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시절에 가야산을 울리던 큰스님이 더 그리운지도 모른다.

이번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에 나오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 열 한분이 쓴 11편의 이야기는 성철 스님과 '인연'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

성철 스님을 생전에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의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김양수 화백의 선화와 곁들여 소개하고 있는 것.

열한분이 들려주는 성철 스님의 훈훈한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야기를 만나보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성철 스님은 왕왕 '공부하지 않는다'며 대중을 밖으로 끌어내 봉암사 계곡의 시냇물속에 가져다 집어넣곤 했어요. '본심을 내서 공부하라'는 경책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 선원장 지환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동안 저절로 입이 벌어졌지요. 현대물리학, 위상수학, 유크리트 기하학, 실험 심리학등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회고한다.

삼정사 주지 원소 스님은 "사미계를 받기 며칠전 군복을 지피며 속죄를 고민할 때 큰스님이 지나가며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는데 승려처럼 보람있는 일은 없다. 우리를 인생이란 너 무 짧은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마라' 라고 격려해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한다.

직지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사람을 푸근하게 감싸주기 보다는 사람을 격발시키는, 펼쳐 일어나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고 말하며, 박경훈 前 동국대 역경위원은 "처음 보자마자 교만하다며 교만을 떨쳐야 견성이다 성불이든 한다 말했다"고 회상한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선근 교수, 백련사 신도회장 김철진성보살,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은 "3000배를 끝내는 순간 신선한 전율과 온몸을 감싸게 하는 평화를 느끼게 해주신 스님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가야산 호랑이를 만나다>를 읽는 동안 성철 스님의 엄한 가르침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성철 스님과 맺은 특별한 인연 간직한다

11명이 들려주는 '서릿발 같은 카리스마'



맨발로 찾아다니는 전 세계 선방 풍경

길을 걷는 자는 누구냐
장휘욱 김사업 지음 | 더북컴퍼니 | 9000원

도쿄대, 교토대, 일본의 두 명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장휘욱, 김사업 교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두 사람은 경남 통영의 외딴 섬 오곡도로 들어가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 전 세계의 선방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수행법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다.

하루 15시간씩 좌선하고 겨울에도 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찬바람을 맞으며 수행하는 일본의 선방 고가쿠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묵언과 오후 불식으로 집중수련하는 위빠사나 수행처 세우민 센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탁남 스님의 플럼 빌리지 등 각 나라 선방의 독특한 수행법이

소개된다. 맨발로 찾아다니는 세계 각국의 선방 풍경, 그리고 치열한 수행 체험!

이 책에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 수행의 방법, 수행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살아가는 방식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장의 마지막에 그 수행처에서 가르치는 수행법까지 정리해 두었다.

오곡도 명상수련원(www.ogokdo.net)에서는 이들이 전세계의 선방을 다니며 체험한 다양한 수행법의 핵심을 행하고 있으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김원우 기자



맑고 향기롭게
법정 스님 지음
1만2000원

무소유... 침묵... 간소한 삶...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직접 가려 뽑은 50편의 글이 담겨 있는 대표 산문선집이다.

법정 스님의 글은 한국 수필 문학의 대표, 우리 시대의 산문 정신으로 손꼽힌다. 특히 산중 생활에서 길어 올린 명상과 사색이 특유의 계절적인 감성과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영혼의 피안처가 되어 준다.

법정 스님의 산문은 문학적인 수식과 꾸밈이 아닌 실천하는 삶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스님의 글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 답변을 준다.

이제는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의 철학, 침묵과 홀로 있음, 단순하고 간소한 삶은 이제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목표가 되었다.



삶의 나침반 1
출판사 열림원
허문명 지음
9500원

승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지침을 바탕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전복과 마음의 혁명을 일으킨 승산 스님.

스님은 폭넓고 유연한 가르침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논리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스님은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를 넘어 삶의 방향을 이끌어준 어른이자 친구였다.

승산 스님은 세계 30여 개국에 130여 개의 선방이 있으며 100여 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다.

마흔여섯의 나이에 떠나던 이국땅으로 달려가 밀바닥 생활을 감수한 스님의 삶은 그 자체로 선이고 감동적인 가르침이었다. 과로와 피로를 벗 삼아 종횡무진 세상을 누비다 2004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한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준 자비의 경지야말로 스님이 보여준 깨달음의 궁극이었다.

이 책에는 승산 스님의 활동과 더불어 법문, 제자들의 추모글, 연보, 국제선원 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2006 '서울국제도서전' 6월 2일 개막



국내 최대의 책 전시회인 제12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으로! 책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린다.

이번 도서전에는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소속 13개 출판사에서 200여종을 전시하는 것을 비롯 24개국, 471개 출판사가 참가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불교계 참가 출판사는 여시이문 동국역경원 운주사 장경각 정우서적 민족사 불광우리출판사 동쪽나라 솔바람 조계종출판사 효립 여래 등이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는 불서를 발간하고 있는 10여곳의 일반출판사에도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함께 불교부스에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책으로! 책으로!" 주제

불출협 13개 출판사 200여 종 전시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삼국유사> 특별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삼국유사의 내용을 그래픽아트, 사진, 동영상, 연극, 그림 등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인 고은·김용택, 소설가 김훈·신경숙 씨의 집필작업을 재현하는 '작가의 방'과 북디자인전, 북한서적 전시, 북한영상물 상영 등이 선보인다. 신간발표회와 저자와 사진 한 장, 우리동네 서점신문 발행 콘테스트, 역사학 카페도 마련된다.

이밖에 한국국제화 심포지엄, 해외 출판인 초청세미나, 북아트 전시회 및 어린이 북아트 세미나, 도서 퀴즈대회 등의 이벤트가 곁들여진다. 한국불교출판문화협회 부스연락처 (02) 6002-7318.

새로운 책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반산 스님, 부다가야= BBS 불교방송 '경전공부'의 교재로 만들어졌다.)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는 금강경 속 세친(世親)보살의 27단의(斷疑)와 무착(無著)보살의 18주체를 함께 풀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있다. 또 글 중간 중간의 선화 이야기는 금강경과 선의 핵심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경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반산 스님(부산 영축선원장)은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고원 명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5하인거 성만했으며 1990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1999년 조계종집회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을 거쳐 2001년~2003년 행자교육원 교수 사를 역임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받아심경
 - 진흙소가 뭉쳐를 걸어간다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 큰스님 큰 가르침
 - 대산출판사, 정영섭, 1만5000원
 - 민족사, 성법 스님, 9500원
 -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 고즈원, 서희동, 1만2800원
 - 문예출판사, 율형광, 1만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이 책을 읽지 않고 간화선을 논하지 말라

여기 한 권의 책 속에 간화선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미래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선禪, 그 선의 정수이며 최고 수행법이 바로 간화선이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스님이 간화선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간화선의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간화선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실참을 지향하는 수행자의 삶이 선 수행의 올바른 길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간화정로가 한국불자들의 필독서가 되고 선원수좌들의 애독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간화선이 우수하다고 자처하면서도 세계에 알리는데 지침서가 부족했다면 간화정로는 선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설정스님(역승총림 수좌)]

월암스님은 제법선원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간화정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제 이 책이 스님, 제자, 해외불자들에게 선수행의 지침서가 되어 눈 밝은 남자가 무수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스님(전국 선원수좌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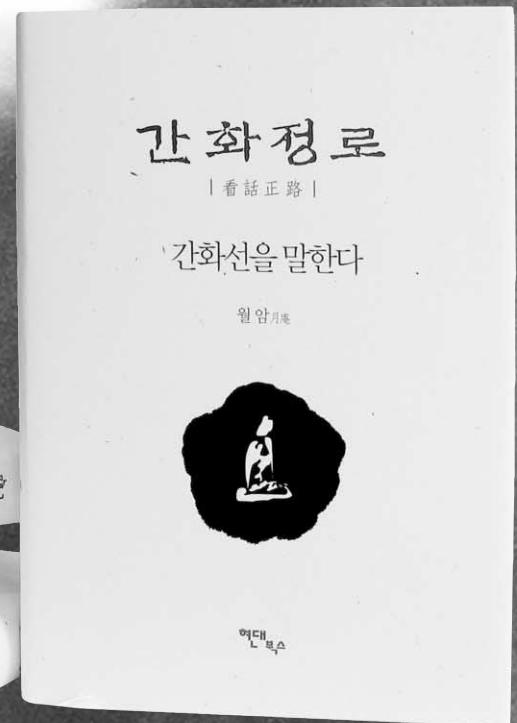
간화선이 수승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롯이 수행을 일관하신 분들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불교 학자들은 실참이 부족하여 그 깊이를 가능하기 어려워 정확한 간화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행과 학술적 근거를 겸한 간화정로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간화선 지침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看話正路 간화정로

출판 한달만에 2쇄 돌입

월암月庵

- 도문화상을 은사로 중생사 출가
- 북경대학에서 (토오선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취득
- 중국 진어선사, 백림선사, 남화선사, 천동선사 등 선원에서 선침묵 7인거
- 백양사, 화엄사, 봉암사, 정혜사, 벽송사 등 선원에서 수선안거
- 동국대학 선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지도
- 現,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
- 불교신문 (선의 정경) 기고중



글 월암月庵 | 양장본 512쪽 | 18,000원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